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중독 교육’ 실시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00명 대상으로 교육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가 17일 경상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도박 중독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중독성과 사례들을 교육하

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전문 심리상담사 9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은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와 강의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경상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학교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도박의 정의와 위험성 및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 전파는 물론, 도박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까지 담아 진행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 청소년 도박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예방교육이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학업 및 자립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이다.

상담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한윤석 기자

전국 최초 인공지능 발전협의회 출범해

부산시-네이버클라우드(주), 부산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본격화



부산시는 오는 9월 22일 오후 4시 해운대구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 「제1회 부산시-네이버클라우드(주) 인공지능(AI) 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주) 전무 ▲시 관계자 ▲지역 아이티(IT)기업 20여 개사 ▲대학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8일 시와 네이버클라우드(주)가 체결한 「부산형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국 최초로 부산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과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역 아이티(IT)기업과의 동반 성장 ▲데이터 생태계 강화 ▲전문 인재 양성 ▲공공서비스 혁신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행사는 ▲부산시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추진 현황 발표 ▲네이버클라우드(주)의 공공 분야 인공지능 전환(AI) 전략 제언 ▲

지역 아이티(IT)기업의 기술 발표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AI) 연구 성과 공유 등 총 4개 분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자유 네트워킹이 진행돼 부산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 협력 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데이터 수집·정제 및 학습데이터 확보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공동 연구·실증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지역 상생형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이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우유 기자

이동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해 드립니다

남구 무거동에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9월 18일 남구 무거동(남구 대학로 147번길 23-3, 4층)에서 ‘제3호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양대호 총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하 및 인사말씀, 시설 순회(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2022년 달동 이동노동자 쉼터를 시작으로 2023년 진장동 쉼터에 이어 울산에서 세 번째로 마련된 쉼터로 이동노동자 수요가 많아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남구 무거동 지역에 설치하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178㎡ 규모로 시설을 조성했다. 쉼터 내부에는 공동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공간, 체성분(인바디) 측정기, 피시(PC),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용 대상은 택배기사, 빠른배달(퀵서비스) 기사, 배달원(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검침원 등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운영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거이동

노동자 쉼터는 심야시간과 휴식기·휴한기 등 기후위기 속에서 겪는 노동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노동 관련 상담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원사업, 안전 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해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에스-오일쥬의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울산권역 ‘닥터-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닥터-카’는 일반 급급차와 달리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탑승해 현장에 출동, 중증외상환자를 처치하며 이송하는 특수 응급의료 체계(시스템)다.

이호근 기자

경북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경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명의 시·도지사 및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APEC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감응하였으며, 정희용 지역 국회의원도 자리에 참석하여 달빛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현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2년이 되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

제가 되지 않아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하고, 국정과제로 달빛 철도를 포함한 국도의 횡축·종축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계획을 발표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

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과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조속한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이

는 총연장 198.8km의 동서횡단 철도로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17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본청, 시군,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한윤석 기자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서명운동 열기 빠르게 확산

기관·시민 함께...사천시 9개 기관 릴레이 참여, 우주항공기업도 동참

경남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의 열기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7월부터 9개 관내 주요 기관에 협조를 구해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각 기관장과 임직원이 직접 앞장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 서명운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7월 22일 캠페인 첫날에는 사천시장이 포문을 열고, 이어 사천

해양경찰서장 등 각 기관장이 차례로 참여에 나섰다.

캠페인에는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사천소방서, ▲사천상공회의소, ▲한국항공공사 사천공항,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한국공항서비스(주) 등 총 9개 기관이 적극 동참해, 도민과 시민에게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이 추진 목표인 만큼, 지역 대표

우주항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와 한국공항서비스(주) 등 항공·우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 돋보였다. 이들 기업은 임직원 단체 참여와 홍보물 배포 등에 앞장서면서 서명운동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지역의 미래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도민 모두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길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고, 온라인 서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기관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호응하며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제공항 승격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주관의 이번 범도민 서명운동은 오는 9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계속된다.

최성룡 기자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통해 주요 일자리정책 알린다

경상남도 주요산업, 생애주기 맞춤형 주요 일자리 정책사례 홍보



경상남도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18개 시군과 함께 ‘경상남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2025 지역경제 혁신박람회’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등이 참여해 우수정책, 대표콘텐츠 전시, 지역기업 우수

육성사례 등을 공유·확산한다. 도는 2022년부터 18개 시군과 함께 공동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의 주요 정책과 △신중년 일자리 전담 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을 통한 재취업 활성화 등 경남도의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을 소개한다. 올해 8월 역대 최고 고용률(63.6%)을 기록한 도는, 선박·항공·방위산업 등 제조업 주력산업을 경남 항공 이종구조 개선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등 도정 우수시책과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으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채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143명이 원활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청년 정책들도 박람회에서도 알릴 예정이다. 시군별 특화 일자리 정책과 문화·관광 산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최근 확정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도 홍보해 지역 발전 비전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황주연 산업인력개발장은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

2026대구마라톤, 접수 하루만에 2025 대회 뛰어넘다

대구광역시 ‘2026대구마라톤대회’ 마스터즈 풀코스 참가자 접수 결과, 9월 18일(목) 9시 기준 총 1만 6천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1일에 걸쳐 모집한 풀코스 참가자 1만 3천여 명을 단 하루 만에 넘어선 것으로, 2026년 국내에서 개최될 세계육상연맹(WA) 인증 첫 마라톤대회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라톤 대회로 성장한 대구마라톤에 대한 전국 마라토너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평

가된다. 개인 접수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러닝 크루 등 단체참가 열기를 반영해 대구마라톤만에서만 운영되는 ‘50인 이상 단체’ 참가 접수도 같은 날 진행됐다. 그 결과 모집 목표 30팀을 하루 만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 2월 22일(일) 개최 예정인 ‘2026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정대형 엘리트 선수와 풀코스 2만 5천 명, 10km 1만 5천여 명, 5km 달리기(5km) 5천여 명 등 총 4만

여 명의 국내외 마스터즈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세계 단 25개뿐인 세계육상연맹 골드 라벨 인증 대회다. 특히, 2026년 대회를 앞두고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인증 신청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참가 접수에 앞서 작년 대비 4배 이상의 서버를 증설하고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접수 시작과 동시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구마라톤 홈페이지의

참가신청 기능에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월) 10km, 건강달리기(5km) 참가 접수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가 신청과 참가비 결제를 분리 운영하는 등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경기 행정부시장은 “2026대구마라톤대회 참가 접수에 보여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